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백신 조기 접종

전주시, 내달 8일까지 총 6985명 대상 확대 시행

전주시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병무청·혈액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과 산발진화 근무자·특별사법경찰관 등 사회필수인력 접종을 조기에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 8일까지 병무청·혈액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과 산발진화 근무자·특별사법경찰관 등 사회필수인력 총 6,985명에 대해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위탁의료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장애인 등 돌봄 종사자와 병의원 및 약국 종사자, 만성질환자 등 5,318명을 포함해 총 1만2,303명으로 늘어났게 됐다. 추가된 조기접종 대상자는 ▲병역판

정검사를 하는 병무청 직원 ▲장기조직기증원과 혈액원의 부검 수행 및 검체 취급자 ▲산발진화 관련 업무를 하는 산림청 직원 ▲특별사법경찰관 ▲노인 응급관리요원 등으로, 접종일이 당초 5월에서 약간 앞당겨졌다.

접종 일정은 ▲돌봄종사자·항공승무원(~4.30.) ▲병무청·혈액원(4.26.~5.1.) ▲산림청·특별사법경찰관(4.26.~5.8.) 등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된다.

사전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이나 위탁의료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사전예약 기간은 접종 대상자별로 다르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

전에약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는 조기접종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위탁의료기관도 5개소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된 위탁의료기관은 ▲전주예수병원 ▲신기독병원 ▲시티병원 ▲오뜸병원 ▲박종혁 믿음병원 등이며, 총 15개소에서 접종이 이뤄진다.

접종은 ▲발열체크 및 접종대상자 확인(신분증 지참) ▲예진표 작성 ▲의사예진 ▲백신접종 ▲접종 전산등록 및 확인서 발급 ▲이상반응 모니터링(15~30분 가량) ▲귀가조치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예방접종 전 문의사항 및 예약관리, 접종 후 이상반응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콜센터(063-288-5066~5065, 5607~5616)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26일 이후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원·입소·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전북대학교 코로나19 환자진료 종사자, 75세 이상 노인, 특수교육 종사자, 유·초·중등 보건교사,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교직원 및 간호인력, 장애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 총 3만2,000여 명에 대해 접종을 마쳤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접종 사전예약 기간과 1차 접종 시기가 대상군별로 변동이 생긴 만큼 정확한 시행 일정을 확인 후 접종에 임해달라"면서 "접종속도를 보다 높이면서 안전하고 차질 없는 예방접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75세 이상 노인 백신접종 지원 27일, 김승수 전주시장이 75세 이상 노인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각 동 주민센터와 확산예방접종센터를 오가는 수송버스에 탑승하기 전 접종대상자의 발열체크에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버스 승하차를 도왔다.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개소

인공지능·블록체인 분야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 거점 역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 디지털 핵심인재를 양성할 이노베이션 스퀘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주시는 27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김승섭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하준홍 과학기술통신부 SW인재정책팀장, 서문산성(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 개소식을 개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66억원이 투입된 전주ICT이노베이션 스퀘어는 전북VRAR제작거

점센터가 입주한 청년이음센터(덕진구 백제대로 816) 내 2~5층에 동지기를 들었다. 앞으로 인공지능(AI) 및 블록체인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2~4층은 오픈스페이스 회의실과 가변형 세미나와 교육이 가능한 이노베이션랩, 4차 산업혁명 기반 ICT전문교육장으로 구축했으며, 5층은 창업관과 3D메이커스 창작실로 조성됐다.

시는 이날 개소식에 이어 미리 모집한 수강생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글로벌 특강도 열었다. 특강에는 로봇

전주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개소식



공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데니스 홍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초청돼 '로봇의 기계적 지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열린 강의를 펼쳤다.

오늘 2시부터는 국내 빅데이터 분야 최고 권위자인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의 '데이터가 만든 투명성,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와 배순민 KT AIZL 연구소장의 'AI기술 발전과 삶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윤상 기자

유기견 새로운 가족 품으로

전주시 유기동물 재활센터 적응훈련 통해 128마리 시민에 분양

생명이 위태로웠던 유기견들이 전주시 유기동물 재활센터의 적응훈련을 통해 시민들 품으로 속속 안기고 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주)는 지난해 2월부터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지정·운영한 결과 총 395마리의 유기견 가운데 128마리를 시민들에게 분양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문을 연 유기동물 재활센터는 유기동물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반려견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운영된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은 10일간의 공고기간에도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가 이뤄지는데, 유기동물 재활센터에서는 약 2개월간 전문 훈련사를 통한 기본·순치훈련(감들이기), 사회 적응 훈련, 애견미용 등을 지원해 유기견의 안락사를 줄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다.

재활센터에는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총 395마리가 입소해 128마리가 입양됐으며, 107마리는 보호 중에 있다. 인도적 처리(안락사)됐거나 자연사된 개체는 160마리이다. 특히 시민들에게 분양된 128마리 중 단 한 마리도 파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유기견 훈련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

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은 키우면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문제들을 사전에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입양 후에도 연 2회에 걸쳐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등 재유기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유기동물 재활센터서 유기견을 입양하고자 하는 시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유기동물을 먼저 확인한 뒤 완주군 이서면 소재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동물복지과(063-281-504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 같은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운영해 유기견의 재입양률을 향상시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실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관주 소장은 "매년 유기동물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유기동물 재활센터가 유기견을 입양하고 싶은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유기견들의 안락사를 막고 있다"면서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 사이클부, 전국대회서 메달 획득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서 양진식 선수 금메달·최우성 선수 동메달

전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감독 소순직) 선수들이 지난 17일부터 22일 까지 6일간 나주 벨로드롬에서 열린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국 남자 일반부에 15개 팀이 참가



양진식 선수

한 이번 대회에서는 양진식 선수가 1km(S/S) 종목에서 금메달을, 최우성 선수가 경륜 종목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3명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 단체 스포르트에서는 4위의 성적을 거뒀다.

소순직 감독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단한 연습과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내준 선수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성적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오병준 선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취임

오병준 선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이 지난 26일 취임해 업무를 보기 시작했다.



오 원장은 이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비대면으로 취임사를 전달했으며, 간부들과 주요 현황을 점검했다.

미국 텍사스 A&M 대학원에서 박

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1996년 금호석유화학에서 책임연구원 생활을 한 뒤 동산대학교 교수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명방재센터장,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오병준 원장은 "향후 연구원은 농생명 관련 대형 국가사업 수주와 전주시 관내기업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전주형 스타 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